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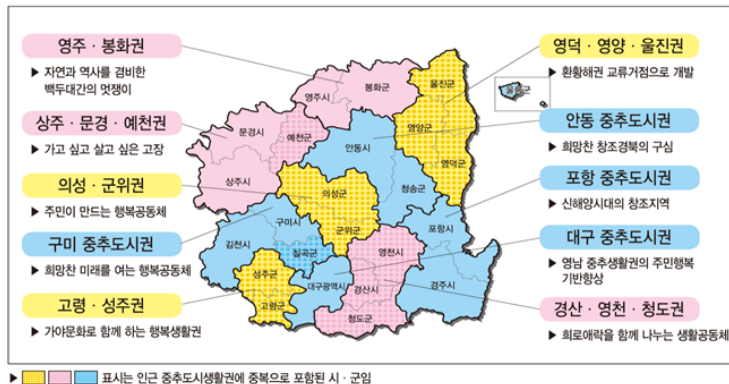
제8장 경상북도 행복생활권별 생애주기 특성 분석

박시내

I. 과제배경

- (과제배경) 경북도청에서는 도민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별 통계지표 등 주민생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향분석실의 지원 및 통계자료 분석을 요청함*
 - * 근거문서: 동향분석실-607호('14.4.1), 동향분석실-1399호('14.7.31)
- (분석내용) 지역행복생활권*을 적용하여, 대구·경북지역 10대 행복생활권별 생애주기 주요 지표를 도출하고, 권역별 생애주기 주요 특성을 분석함

[그림 8-1] 대구·경북지역 10대 행복생활권



*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및 발표”(지역발전위원회, ‘14.3.12.)

** 중추도시 생활권(4개), 도농연계 생활권(3개), 농어촌 생활권(3개)로 구성

- **(활용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가구 및 개인 표본조사
 - **(주요내용)** 가족 생애주기 특성으로 가구규모(가구원 수), 한 부모가구,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개인 생애주기 특성으로 인구구조 및 성비, 평균 연령, 취업인구 분포, 직업 및 종사상 지위, 혼인상태 및 초혼 연령, 출생아 수, 고령자 가구 형태,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을 분석함
- **(기대효과)** 국민 체감도 높은 통계자료 분석 및 제공으로 지역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통계수요에 부응

Ⅱ. 가족 생애주기 특성

1. 가구특성

- **(가족 생애주기)** 가족 생애주기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형성기, 확장기, 수축기, 소멸기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표 8-1〉 가족 생애주기

	형성	확장	수축	소멸
생애주기 사건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 독립	배우자 사망
가구주 연령	25~34세	35~44세	45~64세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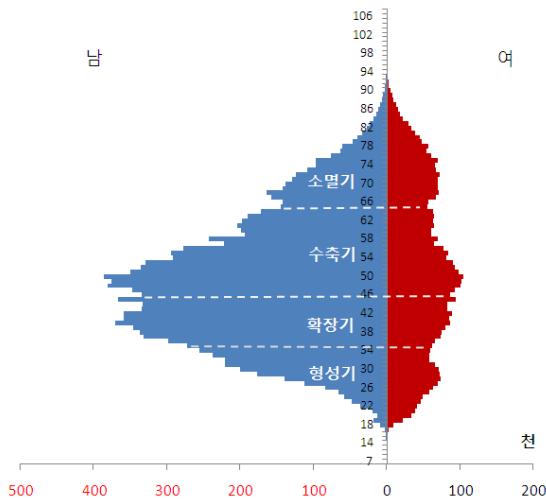
주: 1. 가족 생애주기 구분에 ‘초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이 고려됨

2.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31.8세), 여성(28.9세)이며, 기혼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31.3세임 (「인구동태조사」, 2010)

- **(가족 형성기)**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임
- **(가족 확장기)**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족 규모가 확장되는 시기임

- (가족 수축기)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임
- (가족 소멸기)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이 소멸되는 시기임

[그림 8-2]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전국): 2010년



- ◆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
- (형성기, 34세 이하) 16.2%
 - (확장기, 35~44세) 23.8%
 - (수축기, 45~64세) 42.2%
 - (소멸기, 65세 이상) 17.8%

주: 가구주 연령별 성별 가구 수 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0% 표본자료

가. 가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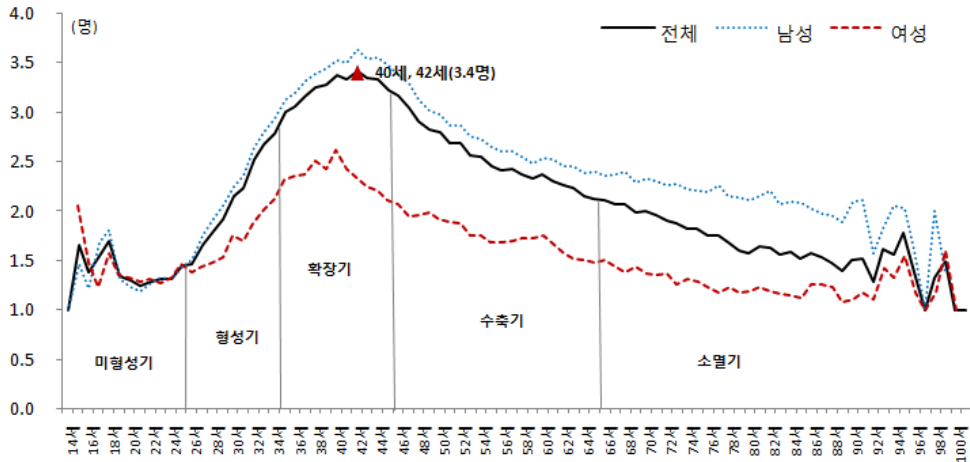
-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원 수) '가족 형성기'에는 가구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확장기'에 정점(40세와 42세, 약 3.4명)을 이루고, 이후 '수축기'와 '소멸기'에 가구원 수는 감소함*

* 가구주 연령별 최대 가족규모(전국) : 42세, 43세 3.4명

- (경북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별 최대 가구규모는 전체 3.4명, 남성 가구주 3.6명, 여성 가구주 2.6명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주) 40세, 42세, 평균 가구원 수 3.4명으로 최대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임

- **(남성 가구주)** 42세, 44세 평균 가구원 수 3.6명으로 최대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 임
- **(여성 가구주)** 40세 평균 가구원 수 2.6명으로 최대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1.6명 임

[그림 8-3]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경북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나. 10대 생활권별 가구특성

- **(행복생활권별 가구규모)** 10개 행복생활권별 가구 수는 대구권이 8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포항·경주권 29만 가구, 구미·김천·칠곡권 23만 가구, 경산·영천·청도권 16만 가구 순임
- **(성별 가구 비중)**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은 생활권은 영덕·영양·울진권(32.2%), 의성·군위권(30.2%), 고령·성주권(29.2%) 순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 여성 가구주 비중도 높음

〈표 8-2〉 행복생활권별 가구 수

(단위: 가구, %)

		전체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868,325 (100)	637,495 (73.4)	230,830 (26.6)
	포항·경주권	285,880 (100)	215,398 (75.3)	70,482 (24.7)
	구미·김천·칠곡권	234,606 (100)	177,235 (75.5)	57,371 (24.5)
	안동·청송권	75,654 (100)	55,106 (72.8)	20,548 (27.2)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55,394 (100)	40,536 (73.2)	14,858 (26.8)
	상주·문경·예천권	88,448 (100)	63,134 (71.4)	25,314 (28.6)
	경산·영천·청도권	155,324 (100)	111,003 (71.5)	44,321 (28.5)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28,063 (100)	19,856 (70.8)	8,207 (29.2)
	의성·군위권	33,569 (100)	23,439 (69.8)	10,130 (30.2)
	영덕·영양·울진권	48,713 (100)	33,041 (67.8)	15,672 (32.2)
총합(대구, 경북)		1,873,976 (100)	1,376,243 (73.4)	497,733 (26.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 (행복생활권별 평균 가구원 수) 10개 행복생활권역별 평균 가구원 수는 대구권 2.7명이며, 대구권을 제외한 지역은 전국평균(2.7명)에 미치지 못함

* 평균 가구원 수(전국) : 2.7명

〈표 8-3〉 행복생활권별 평균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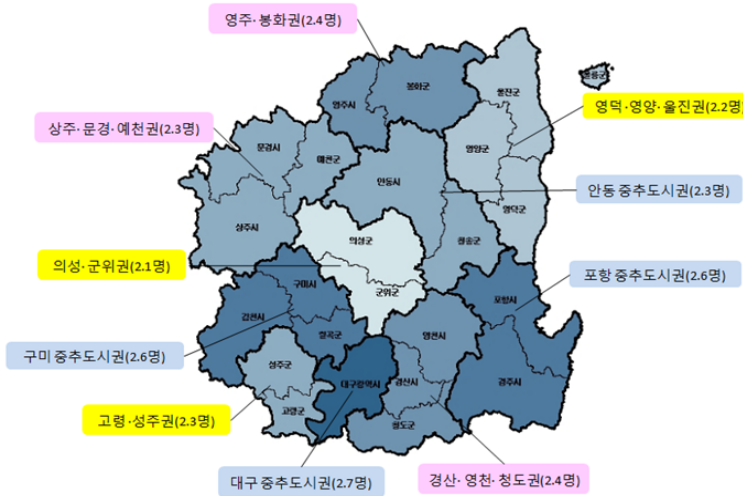
(단위: 명)

		평균 가구원 수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7	2.1
	포항·경주권	2.6	
	구미·김천·칠곡권	2.6	
	안동·청송권	2.3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2.4	1.9
	상주·문경·예천권	2.3	
	경산·영천·청도권	2.4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2.3	1.8
	의성·군위권	2.1	
	영덕·영양·울진권	2.2	
총합(대구, 경북)		2.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그림 8-4] 행복생활권별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자료: 인구센서스(2010) 가구 표본자료

□ (행복생활권별 한 부모 가구 비중) 10개 행복생활권역별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은 대구권 10.9%로 전국 평균(9.2%)을 상회하며, 여타 지역은 9.2% 이하임

*한 부모 가구 비중(전국) : 전체 9.2%, 부+미혼자녀 2.0%, 모+미혼자녀 7.2%

- (한 부 가구) 대구권이 2.1%로 전국 평균(2.0%)를 약간 상회함
- (한 모 가구) 대구권이 8.8%로 전국 평균(7.2%)을 1.6%p 상회함

◆ 한 부모 가구

- 2세대 가구 중 부부의 이혼, 사별로 인해 ‘부+미혼자녀(부자 가구)’, 혹은 ‘모+미혼자녀(모자 가구)’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특히 ‘모+미혼자녀(만18세 미만)’ 가구는 모자가구로 분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임

〈표 8-4〉 행복생활권별 한 부모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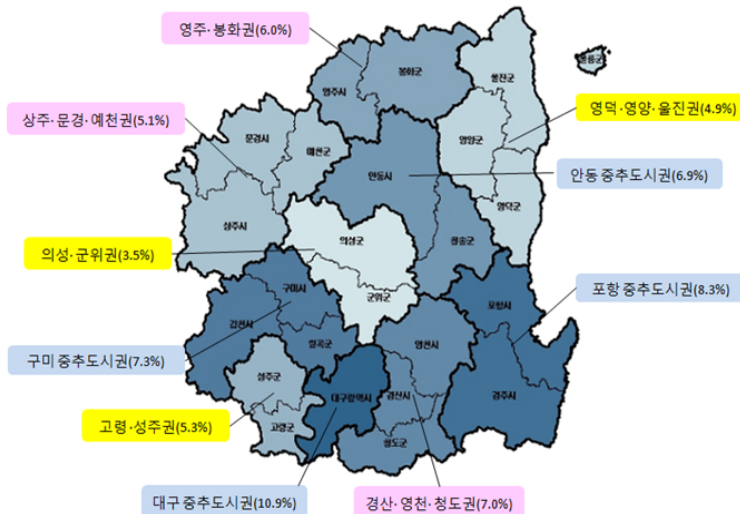
(단위: %)

		한 부모 가구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10.9	2.1	8.8
	포항·경주권	8.3	1.9	6.4
	구미·김천·칠곡권	7.3	1.6	5.7
	안동·청송권	6.9	1.2	5.6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6.0	1.7	4.4
	상주·문경·예천권	5.1	1.1	4.0
	경산·영천·청도권	7.0	1.5	5.5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5.3	1.4	3.9
	의성·군위권	3.5	0.8	2.7
	영덕·영양·울진권	4.9	1.1	3.8
총합(대구, 경북)		8.8	1.8	7.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그림 8-5] 행복생활권별 한 부모 가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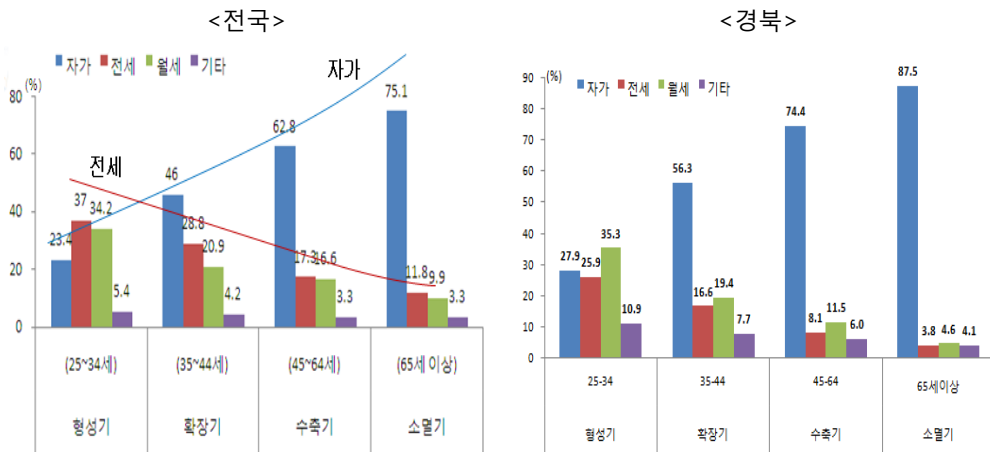


2. 주택특성

가. 주택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점유형태)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자가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세의 비중은 감소함
 - (전국 자가 비중) 자가 거주 비중은 가족 형성기(23.4%), 확장기(46.0%), 수축기(62.8%), 소멸기(75.1%)의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며,
 - (전국 전세 비중) 전세 거주 비중은 가족 형성기(37.0%), 확장기(28.8%), 수축기(17.3%), 소멸기(11.8%)의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감소함
 - (경북 자가 비중) 자가 거주 비중은 가족 형성기(27.9%), 확장기(56.3%), 수축기(74.4%), 소멸기(87.5%)의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함
 - (경북 전세 비중) 전세 거주 비중은 가족 형성기(25.9%), 확장기(16.6%), 수축기(8.1%), 소멸기(3.8%)의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감소함

[그림 8-6]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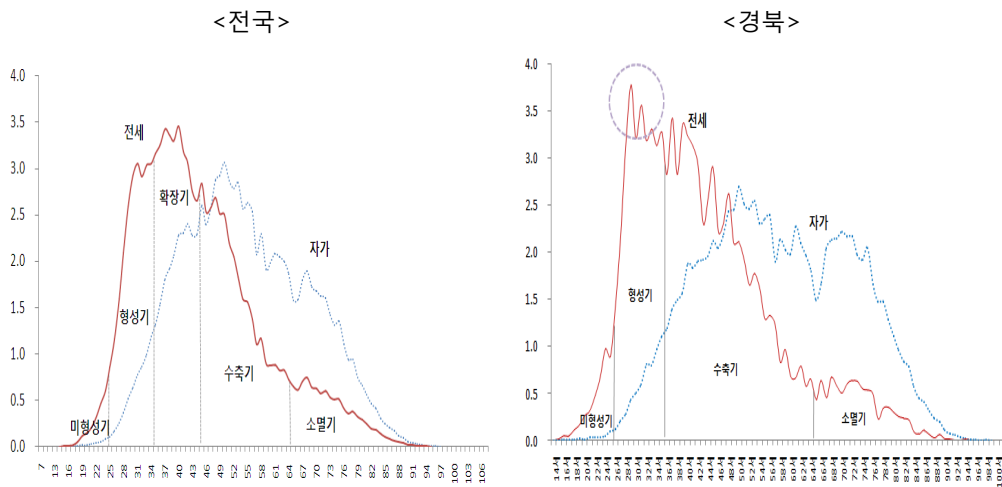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0% 표본자료

-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전세 비중은 '가족 형성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가족 확장기'에 정점을 보이다가 '가족 수축기'에 감소함 (전국 기준)
 - 경북은 '가족 형성기'에 전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점 이루며, '가족 수축기' 중반에 자가 비중이 정점을 이룸
-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가족 확장기'에는 아파트 비중이 높으며, '가족 소멸기'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경북은 고령인구 밀집의 영향으로 단독주택의 가구주 연령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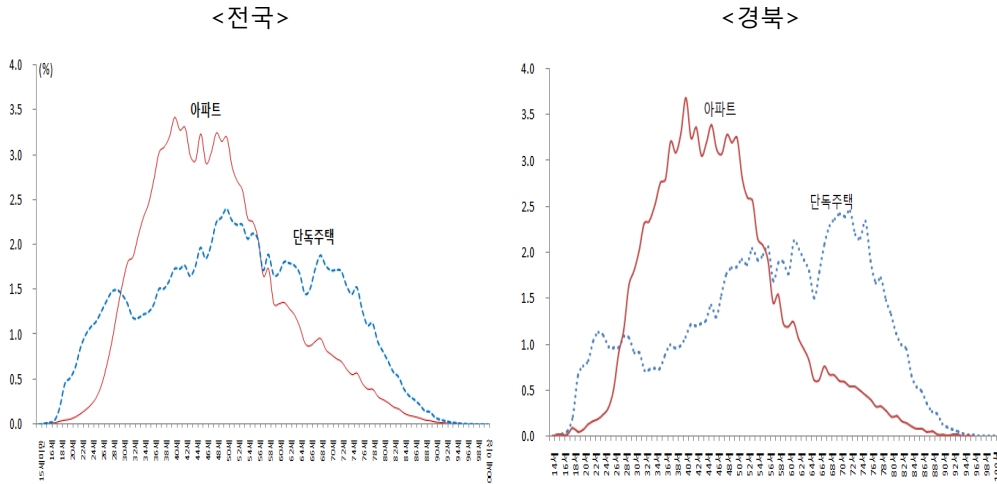
[그림 8-7]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그림 8-8]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나. 10대 생활권별 주택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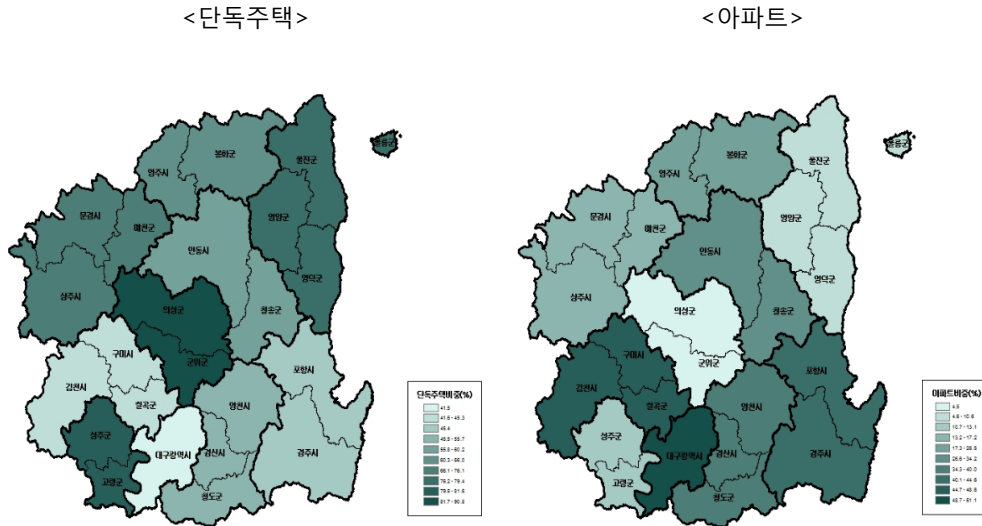
- (행복생활권별 주택 점유형태) 10개 생활권역 중 '자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의성·군위권(88.0%), 상주·문경·예천권(81.0%), 고령·성주권(79.9%) 순 임*

* 주택 점유형태(전국) : 자가 54.2%, 전세 21.7%, 월세 20.2%, 기타 4.0%

- (전세 비중) 10개 생활권 중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권 (20.0%), 구미·김천·칠곡권(16.2%), 경산·영천·청도권(12.0%) 순 임
- (월세 비중) 10개 생활권 중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구미·김천·칠곡권(21.4%), 경산·영천·청도권(20.4%), 대구권(19.6%) 순 임

[그림 8-10] 행복생활권별 주택유형

(단위: %)



□ (행복생활권별 주택유형) 10개 생활권역 중 '단독주택'의 비중은 의성·군위권(90.8%), 고령·성주권(81.6%), 영덕·영양·울진권(79.4%) 순 임*

* 주택유형(전국) : 단독주택 39.6%, 아파트 47.1%, 연립주택 2.9%, 다세대주택 7.2%, 기타 3.2%

○ (아파트 비중) 10개 생활권 중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권 (51.1%), 구미·김천·칠곡권(48.6%), 포항·경주권(44.6%) 순 임

◆ 경북은 전통적인 농도(農道)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중은 낮음

〈표 8-6〉 행복생활권별 주택유형

(단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41.5	51.1	0.6	5.1	1.7	100.0
	포항·경주권	45.4	44.6	2.8	4.9	2.4	100.0
	구미·김천·칠곡권	45.3	48.6	1.3	2.8	2.0	100.0
	안동·청송권	60.2	34.2	2.1	0.8	2.7	100.0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66.0	26.5	3.7	0.7	3.1	100.0
	상주·문경·예천권	76.1	17.2	1.2	0.9	4.7	100.0
	경산·영천·청도권	55.7	40.0	1.2	1.1	2.0	100.0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81.6	13.1	0.5	0.6	4.2	100.0
	의성·군위권	90.8	4.5	0.5	1.4	2.9	100.0
	영덕·영양·울진권	79.4	10.6	5.3	1.9	2.9	100.0
총합(대구, 경북)		49.3	43.4	1.4	3.7	2.2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가구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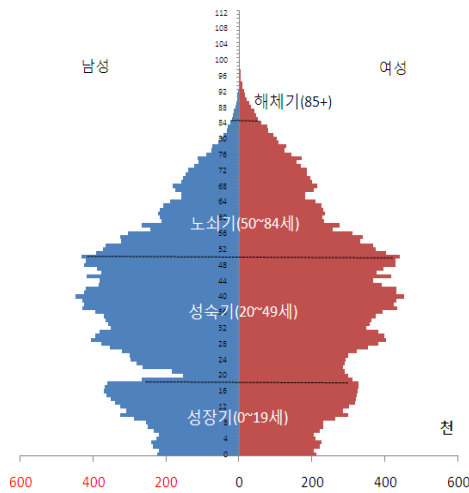
Ⅲ. 개인 생애주기 특성

- (개인 생애주기) 개인의 생애주기는 생애과정 단계를 기준으로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해체기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성장기) 출생 후 부모의 양육 및 정규교육을 받는 시기로, 영·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가 해당됨
 - (성숙기) 정규 교육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고, 결혼 및 출산과 자녀 양육을 하는 시기로, 청년기(20~29세)와 장년기(30~49세)가 해당됨
 - (노쇠기)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및 자녀의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로, 중년기(50~64세)와 노년기(65~84세)가 해당됨
 - (해체기) 노화 및 질병으로 개인이 사망하고, 생애주기가 종료되는 시기로, 초고령기(85세 이상)가 해당됨

<표 8-7> 개인 생애주기

	성장	성숙	노쇠	해체
생애주기 사건	출생, 교육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은퇴, 빈 등지	사망
생애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초고령기
연령	0~19세	20~49세	50~84세	85세 이상

[그림 8-11] 개인 생애주기 피라미드(전국): 2010년



◆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 (성장기, 0~19세) 23.5%
- (성숙기, 20~49세) 46.7%
- (노쇠기, 50~84세) 29.1%
- (해체기, 85세 +) 0.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10% 표본자료

1. 인구구조 및 분포

가. 경북 인구구조

- (경북 인구구조) 경북지역의 인구구조는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밀집된 상단이 '표주박형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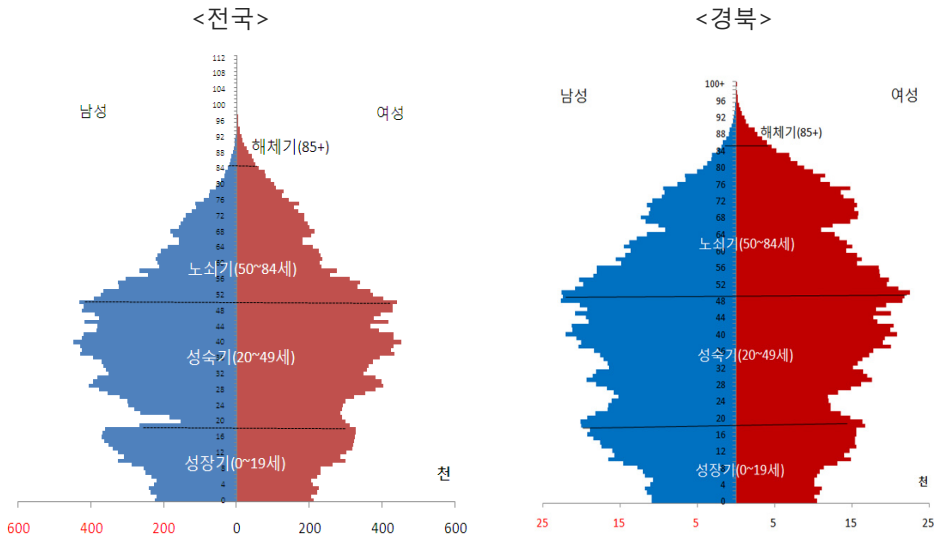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인구 : 전국 11.3%, 경북 16.7% / 평균연령 : 전국 38.1세, 경북 41.1세

◆ 경북 지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북 성비) 경북의 성비*는 99.0으로 전국(98.7)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경북 연령별 성비: (0-4세) 107.1, (5-9세) 111.0, (10-14세) 111.7, (15-19세) 121.7, (20-24세) 133.8, (25-29세) 115.5, (30-34세) 107.7, (35-39세) 104.1, (40-44세) 105.9, (45-49세) 104.5, (50-54세) 100.6, (60-64세) 95.5

[그림 8-12] 인구구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주: '성비'란 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의 비를 말함

나. 10대 생활권별 인구수 및 평균연령

□ (행복생활권별 인구수) 10개 행복생활권의 인구수는 대구권(2,399천명), 포항·경주권(751천명), 구미·김천·칠곡권(631천명) 순 임

- **(성별 인구수)** 행복생활권별 인구수는 구미·김천·칠곡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여성의 비중이 높음*

* 의성·군위권은 남성 45.8%, 여성 54.2%로 여성의 비중이 8.4%p 높음

- **(성별 성비)** 행복생활권별 성비는 구미·김천·칠곡권이 '100.6'으로 가장 높고, 의성·군위권이 '84.6'으로 가장 낮음

〈표 8-8〉 행복생활권별 인구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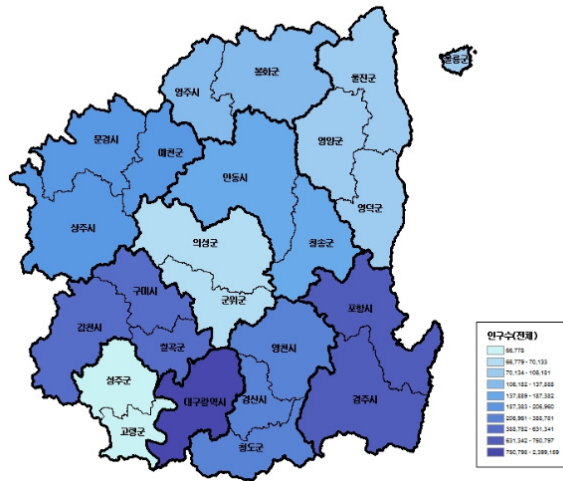
		전체	남성	여성	성비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399,159 (100)	1,169,727 (48.8)	1,229,432 (51.2)	95.1
	포항·경주권	750,797 (100)	372,347 (49.6)	378,450 (50.4)	98.4
	구미·김천·칠곡권	631,341 (100)	316,606 (50.1)	314,735 (49.9)	100.6
	안동·청송권	187,382 (100)	89,998 (48.0)	97,384 (52.0)	92.4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137,888 (100)	66,925 (48.5)	70,963 (51.5)	94.3
	상주·문경·예천권	206,960 (100)	98,021 (47.4)	108,939 (52.6)	90.0
	경산·영천·청도권	388,781 (100)	190,315 (49.0)	198,466 (51.0)	95.9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66,778 (100)	31,951 (47.8)	34,827 (52.2)	91.7
	의성·군위권	70,133 (100)	32,135 (45.8)	37,998 (54.2)	84.6
	영덕·영양·울진권	106,181 (100)	49,997 (47.1)	56,184 (52.9)	89.0
총합(대구, 경북)		4,945,400 (100)	2,418,022 (48.9)	2,527,378 (51.1)	95.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중: '성비'란 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의 비를 말함

[그림 8-13] 행복생활권별 인구수

(단위: 명)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 **(평균연령 상위지역)** 10개 행복생활권의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은 농어촌 생활권인 의성·군위권(54.5세), 영덕·영양·울진권(48.7세), 고령·성주권(48.3세)로 나타남

□ **(평균연령 하위지역)** 평균연령이 낮은 권역은 구미·김천·칠곡권(35.6세), 대구권(37.7세), 포항·경주권(39.2세) 등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나타남

* 평균연령(전국): 전체 37.8세, 남성 36.7세, 여성 38.8세

□ **(성별 평균연령)** 성별 평균연령의 격차가 큰 권역은 고령·성주권(5.6세), 영덕·영양·울진권(5.5세), 상주·문경·예천권(4.9세) 순임



〈표 8-9〉 행복생활권별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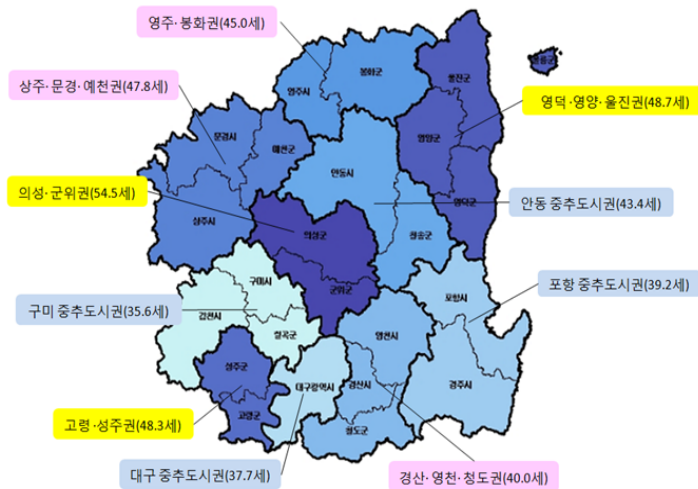
(단위: 세)

		전체		남성		여성		남성-여성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37.7	37.9	36.4	36.5	38.9	39.2	2.5	2.7
	포항·경주권	39.2		37.7		40.7		3.0	
	구미·김천·칠곡권	35.6		34.3		36.8		2.5	
	안동·청송권	43.4		41.6		45.0		3.4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45.0	43.2	43.0	41.0	46.8	45.1	3.8	4.1
	상주·문경·예천권	47.8		45.2		50.1		4.9	
	경산·영천·청도권	40.0		38.2		41.8		3.7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48.3	50.3	45.4	47.4	50.9	52.8	5.6	5.4
	의성·군위권	54.5		51.9		56.7		4.8	
	영덕·영양·울진권	48.7		45.8		51.4		5.5	
총합(대구, 경북)		39.3		37.7		40.8		3.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14] 행복생활권별 평균 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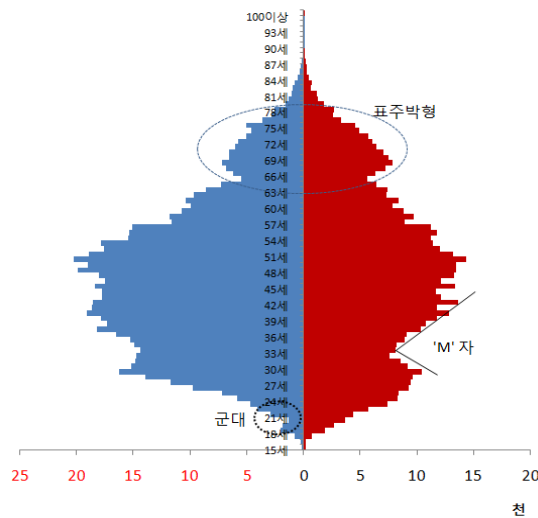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2. 노동시장 특성

가. 취업인구 분포 및 종사상 지위

- (취업인구 구조) 청년기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 생애가 시작됨. 취업인구 구조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군입대로 인한 남성의 함몰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30대 초·중반 여성의 함몰 현상임
 - (경북 취업인구 구조) 경북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인구구조와 유사하게 취업인구 구조 역시 상단이 '표주박형' 임
 - (생애주기별 취업인구 비중)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취업인구 중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이며,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1% 임
- * 취업인구 중 청년기(20~29세) 비중(전국) : 15.3%
- * 취업인구 중 중년기(50~64세) 비중(전국) : 24.7%

[그림 8-15] 취업인구 구조: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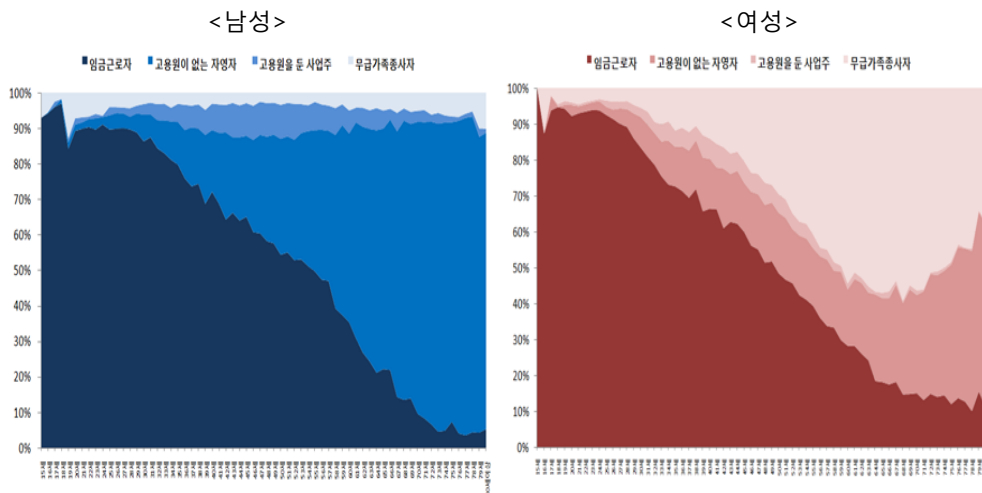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 **(종사상 지위)** 청년기에는 임금부문으로 많이 진입하나, 장년기 이후 비임금 부분의 비중이 커짐
 - **(청년기, 20~29세)**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지는 시기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음
 - **(장년기, 30~49세)** 노동시장의 핵심노동력(primacy workers)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크게 증가함
 - **(중년기, 50~64세)**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서서히 이뤄지는 시기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
 - **(노년기, 65~84세)**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장이 이뤄지는 시기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함
 - **(성별차이)**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 비중이 낮고, 무급종사자 비중은 높음

[그림 8-16] 경북 생애주기별 종사상 지위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나. 취업인구 비중 및 취업자 평균 연령

- (취업인구 비중) 10개 행복생활권 중 취업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위권(62.9%)이며, 취업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권(43.2%) 임
- (취업자의 평균연령) 10개 행복생활권 중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위권(57.2세)이며,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구미·김천·칠곡권(42.0세) 임
 - (남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위권(56.6세)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구미·김천·칠곡권(42.0세) 임
 - (여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위권(57.9세)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권(41.3세) 임

〈표 8-10〉 행복생활권별 취업인구 비중 및 취업자의 평균연령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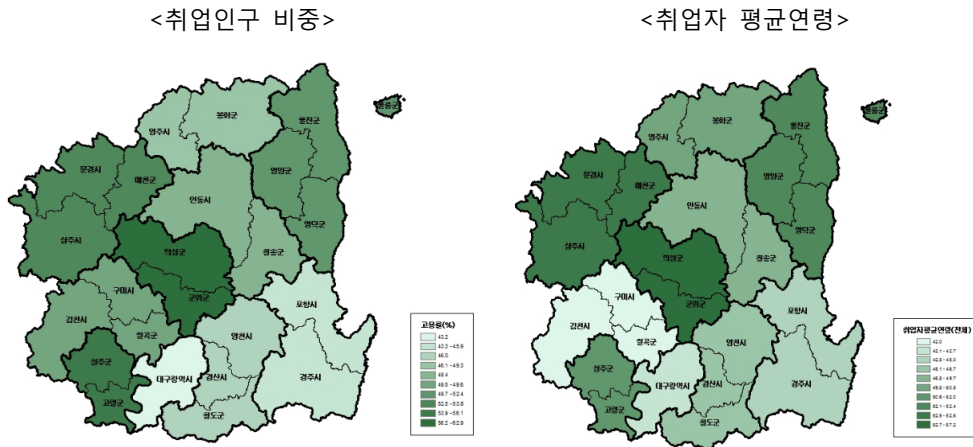
		취업인구 비중	취업자의 평균연령					
			전체	남성		여성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43.2	42.7	43.4	44.0	43.7	41.3	42.6
	포항·경주권	45.9	45.0			45.1	44.8	
	구미·김천·칠곡권	49.6	42.0			42.0	42.1	
	안동·청송권	49.4	49.7			49.4	50.1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49.3	50.5	49.3	48.8	50.3	50.8	49.8
	상주·문경·예천권	53.8	52.6			52.1	53.1	
	경산·영천·청도권	46.0	46.7			46.4	47.2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56.1	52.0	53.9	53.0	51.4	52.7	54.9
	의성·군위권	62.9	57.2			56.6	57.9	
	영덕·영양·울진권	52.4	52.4			51.4	53.8	
총합		46.1	45.0			45.2	44.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17] 행복생활권별 취업인구 비중과 취업자 평균연령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다. 직업

- (생애주기별 직업 분포)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은 주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이뤄지며, 연령증가에 따라 화이트 칼라(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부문은 크게 감소함
 - (청년기 20~29세) 젊은층의 학력수준 상승의 영향으로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진입 비중이 높은 수준임
 - (중년기 50~64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시기로, 사무직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한편 농림어업직 비중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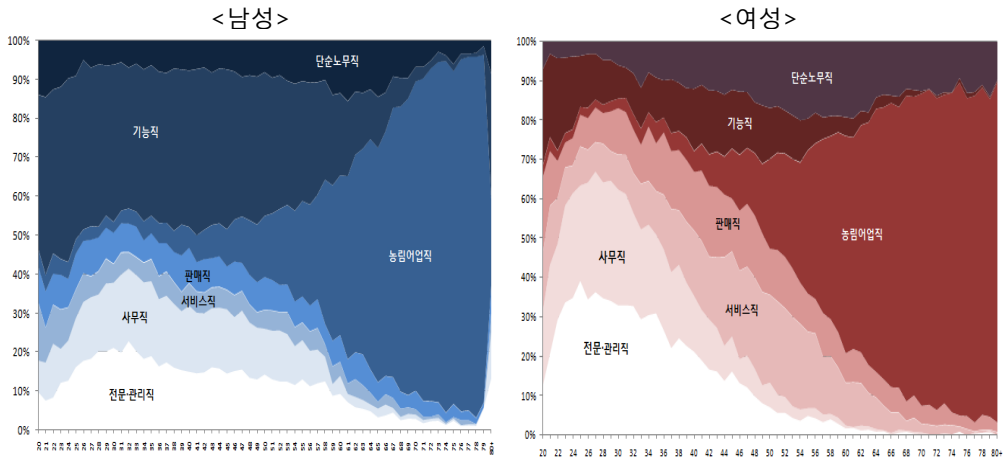
<표 8-11> 경북 성별 직업분포

(단위: %)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군인	계
남성	13.3	12.1	4.8	7.0	21.6	32.3	8.5	0.4	100.0
여성	14.3	10.6	13.8	11.0	27.3	10.5	12.4	0.0	100.0

[그림 8-18] 경북 생애주기별 직업분포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 (행복생활권별 직업 분포)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대구권의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직은 포항·경주권, 농림어업직은 의성·군위권, 기능직은 구미·김천·칠곡권의 비중이 높은 편임

<표 8-12> 행복생활권별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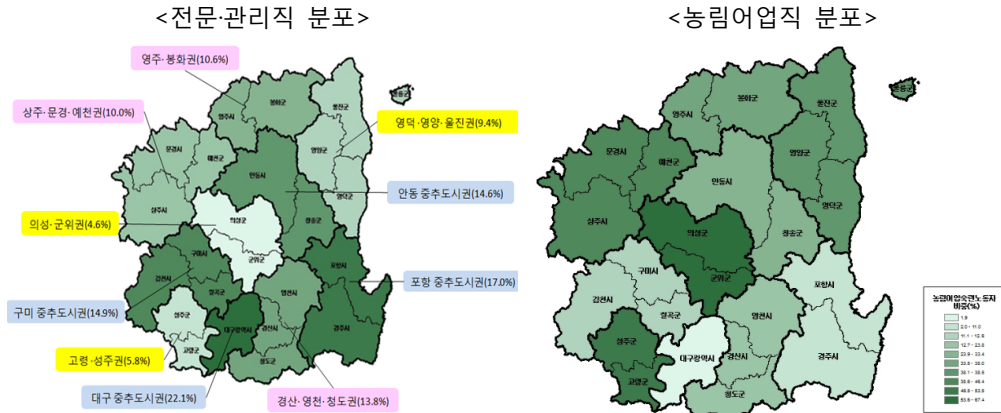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기타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2.1	15.1	10.4	14.4	1.9	24.8	11.0	0.4
	포항·경주권	17.0	13.0	10.6	10.7	11.0	26.4	11.0	0.4
	구미·김천·칠곡권	14.9	13.1	7.7	8.0	12.6	34.3	9.2	0.1
	안동·청송권	14.6	10.5	9.9	9.7	33.4	11.6	10.2	0.1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10.6	8.8	7.8	9.3	38.0	14.4	10.9	0.2
	상주·문경·예천권	10.0	8.3	7.2	7.2	46.4	10.9	9.6	0.3
	경산·영천·청도권	13.8	11.8	8.3	8.8	23.8	22.1	11.0	0.4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5.8	6.8	6.5	5.5	53.5	13.2	8.6	0.1
	의성·군위권	4.6	5.5	4.7	4.1	67.4	6.7	6.9	0.1
	영덕·영양·울진권	9.4	10.4	9.3	7.5	38.5	12.7	12.0	0.2
총합(대구, 경북)		17.5	13.1	9.4	11.3	14.0	23.8	10.5	0.3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19] 행복생활권별 전문·관리직 분포와 농림어업직 분포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3. 혼인 및 출산

가. 혼인상태 및 초혼연령

□ (행복생활권별 혼인상태) 10개 행복생활권별 미혼율은 경산·영천·청도권이 30.6%로 가장 높으며, 유배우율은 의성·군위권이 67.1%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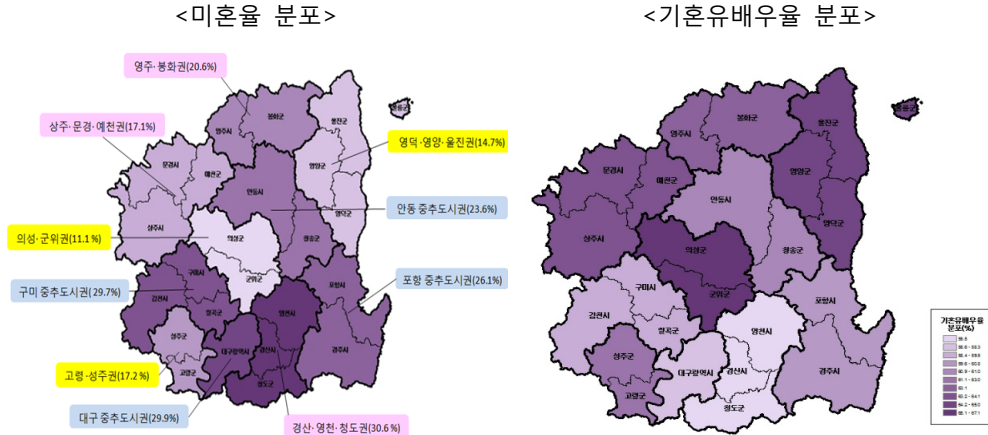
* 혼인상태별 비중(전국) : 미혼 30.2%, 유배우 59.3%, 사별 7.6%, 이혼 3.0%

<표 8-13> 행복생활권별 혼인상태

(단위: 세)

		혼인상태				
		미혼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	총합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9.9	58.3	7.5	4.4	100.0
	포항·경주권	26.1	60.8	9.2	3.9	100.0
	구미·김천·칠곡권	29.7	59.5	7.7	3.1	100.0
	안동·청송권	23.6	61.0	12.5	2.9	100.0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20.6	63.1	13.5	2.8	100.0
	상주·문경·예천권	17.1	64.1	16.3	2.5	100.0
	경산·영천·청도권	30.6	55.5	10.5	3.5	100.0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17.2	63.0	16.8	2.9	100.0
	의성·군위권	11.1	67.1	19.7	2.1	100.0
	영덕·영양·울진권	14.7	65.0	17.8	2.5	100.0
총합(대구, 경북)		27.5	59.4	9.3	3.8	100.0

[그림 8-20] 행복생활권별 미혼율과 기혼유배우율 분포



- (행복생활권별 평균 초혼연령) 10개 행복생활권별 평균 초혼연령은 대구권이 가장 높음(전체 25.4세, 남성 27.3세, 여성 23.8세)
- 평균 초혼연령이 낮은 권역은 의성·군위권(전체 23.4세, 남성 25.8세, 여성 21.6세)
- * 평균 초혼연령(전국) : 전체 25.6세, 남성 27.6세, 여성 24.0세

<표 8-14> 행복생활권별 기혼인구의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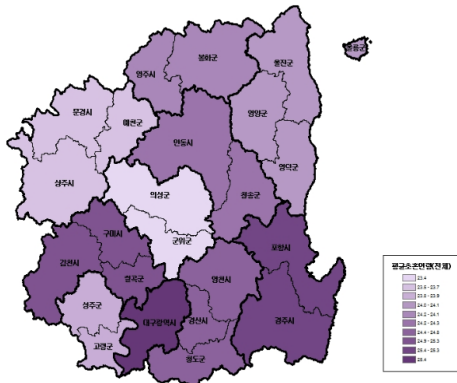
생활권		평균 초혼연령					
		전체		남성		여성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5.4	25.3	27.3	27.3	23.8	23.6
	포항·경주권	25.3		27.3		23.6	
	구미·김천·칠곡권	25.3		27.2		23.6	
	안동·청송권	24.3		26.4		22.6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24.1	24.3	26.3	26.5	22.4	22.6
	상주·문경·예천권	23.7		25.9		22.0	
	경산·영천·청도권	24.8		26.9		23.1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23.9	23.8	26.3	26.2	22.1	22.0
	의성·군위권	23.4		25.8		21.6	
	영덕·영양·울진권	24.1		26.4		22.3	
총합(대구, 경북)		25.0		27.1		23.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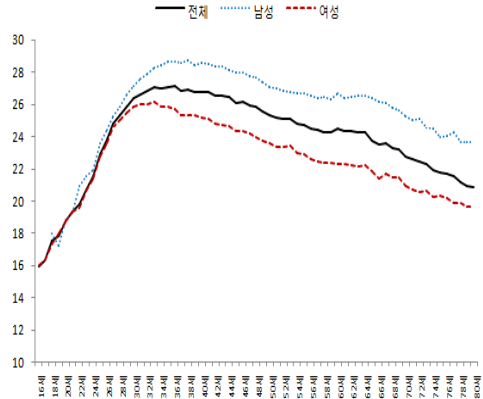
[그림 8-21] 행복생활권별 평균 초혼연령 분포

(단위: 세)



[그림 8-22] 기혼인구의 초혼연령 곡선: 경북

(단위: 세)



나. 출생아 수

- (행복생활권별 평균 출생아 수) 10개 행복생활권별 평균 출생아 수는 의성·군위권(3.44명)이 가장 많고, 대구권(2.27명)이 가장 적음
 - (남아) 의성·군위권이 1.83명, 대구권이 1.2명이며,
 - (여아) 의성·군위권이 1.62명, 대구권이 1.07명임

- (경북의 평균 출생아 수) 경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72명으로 남아 1.42명, 여아 1.3명임
 - * 평균 출생아 수(전국) : 전체 2.38명, 남아 1.23명, 여아 1.14명
 - * 평균 출생아 수(경북) : 전체 2.72명, 남아 1.42명, 여아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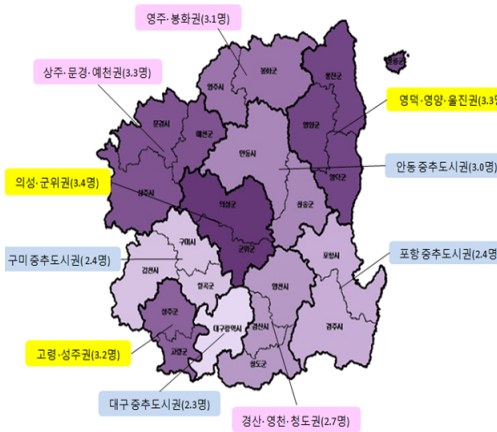
〈표 8-15〉 행복생활권별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생활권		평균 출생아 수					
		전체		남아		여아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2.27	2.4	1.20	1.2	1.07	1.1
	포항·경주권	2.43		1.27		1.16	
	구미·김천·칠곡권	2.36		1.24		1.12	
	안동·청송권	3.03		1.58		1.46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3.11	3.0	1.62	1.5	1.49	1.4
	상주·문경·예천권	3.27		1.71		1.56	
	경산·영천·청도권	2.68		1.40		1.28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3.16	3.3	1.66	1.7	1.50	1.6
	의성·군위권	3.44		1.83		1.62	
	영덕·영양·울진권	3.28		1.70		1.58	
총합(대구, 경북)		2.51		1.32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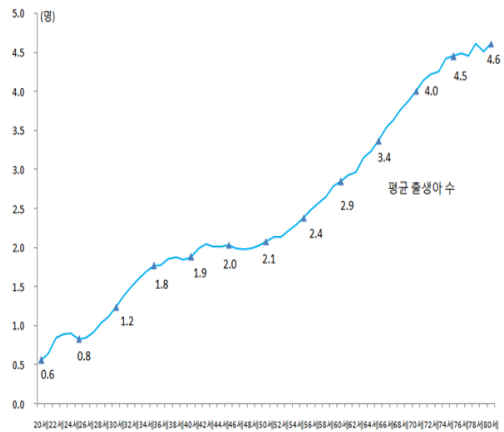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23] 행복 생활권별 평균 출생아 수 분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24]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경북



4. 빈 등지기

가. 고령인구 규모 및 가구형태

- (행복생활권별 고령인구 비중) 10개 행복생활권 중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의성·군위군이 가장 높아 각각 48.5%, 39.2%이며,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3.0%로 나타남
- 10개 행복생활권이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지역은 안동 청송권 등 7개 생활권임

◆ ‘빈 등지기’란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이르러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하고, 은퇴기에 이르러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표 8-16〉 행복생활권별 고령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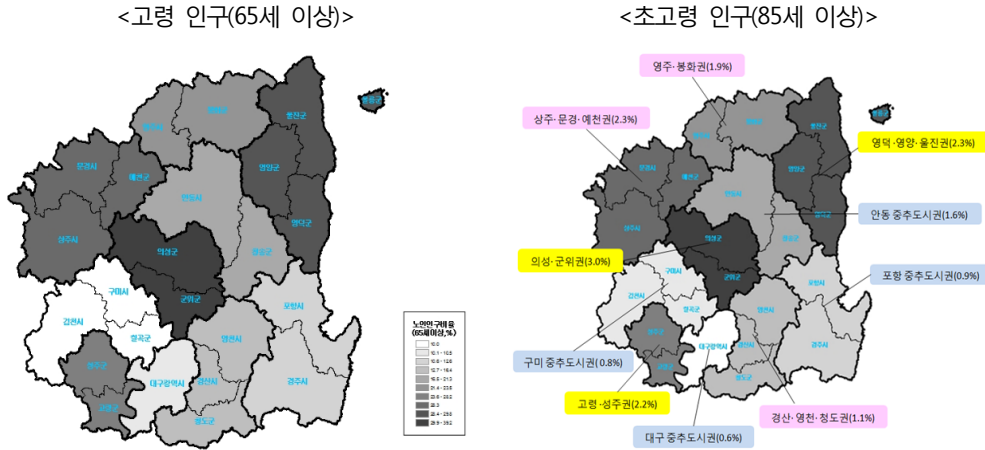
(단위: %)

		60세 이상	65세 이상	85세 이상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15.2	10.5	0.6
	포항·경주권	17.7	12.6	0.9
	구미·김천·칠곡권	13.4	10.0	0.8
	안동·청송권	27.6	21.3	1.6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30.2	23.5	1.9
	상주·문경·예천권	35.7	28.3	2.3
	경산·영천·청도권	21.8	16.4	1.1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36.1	28.2	2.2
	의성·군위권	48.5	39.2	3.0
	영덕·영양·울진권	37.4	29.8	2.3
총합		18.8	13.8	0.9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그림 8-25] 행복생활권별 고령 인구나 초고령 인구 분포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 (행복생활권별 60세 이상 가구의 형태) 대구·경북 지역의 60세 이상 가구의 형태는 부부단독 가구 35.4%, 자녀동거 가구 11.0%, 한 부모 가구 4.8%임
 - (부부단독 가구) 의성·군위권 44.0%, 안동·청송권 42.3%, 상주·문경·예천권 40.3% 순 임
 - (자녀동거 가구) 대구권 16.0%, 포항·경주권 11.4%, 경산·영천·청도권 9.8% 순 임
 - (한 부모 가구) 대구권 6.5%, 포항·경주권 5.3%, 구미·김천·칠곡권 4.5% 순 임

<표 8-17> 행복생활권별 60세 이상 가구의 형태

(단위: %)

		부부단독 가구	자녀동거 가구	한 부모 가구	기타	총합
중추도시 생활권	대구권	31.8	16.0	6.5	45.7	100.0
	포항·경주권	34.5	11.4	5.3	48.8	100.0
	구미·김천·칠곡권	35.1	9.1	4.5	51.3	100.0
	안동·청송권	42.3	5.7	2.5	4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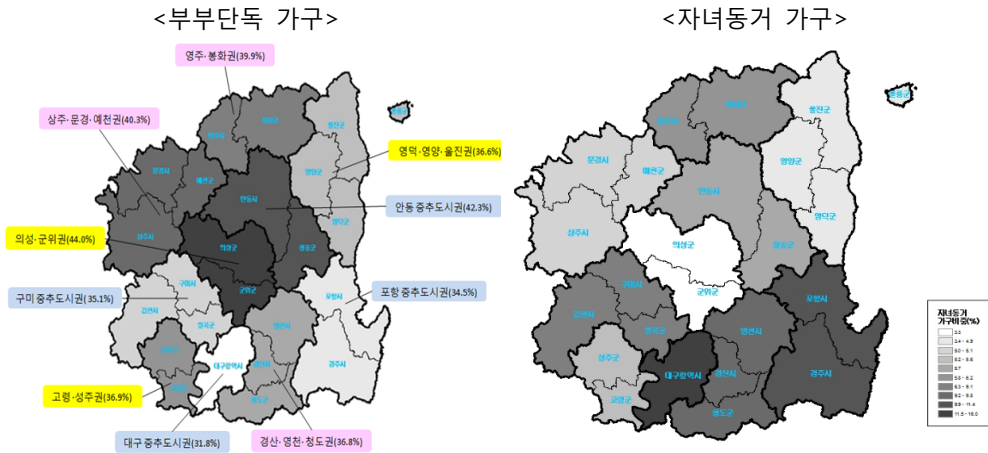
		부부단독 가구	자녀동거 가구	한 부모 가구	기타	총합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권	39.9	6.2	3.4	50.5	100.0
	상주·문경·예천권	40.3	5.1	2.4	52.1	100.0
	경산·영천·청도권	36.8	9.8	3.5	49.9	100.0
농어촌 생활권	고령·성주권	36.9	5.6	3.4	54.1	100.0
	의성·군위권	44.0	3.3	2.0	50.7	100.0
	영덕·영양·울진권	36.6	4.9	3.2	55.3	100.0
총합		35.4	11.0	4.8	48.8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

주: '부부단독 가구'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며, '자녀동거 가구'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 부모 가구'는 '한부+자녀' 또는 '한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그림 8-26] 행복생활권별 60세 이상 가구 중 부부단독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의 분포

(단위: %)



나. 고령자 생활비 원천

-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대구, 경북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이 21.1%, '따로 사는 자녀의 지원' 13.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8.1% 순 임

- **(직업소득)** 10개 행복생활권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중 직업소득이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고령·성주권(27.9%), 의성·군위권 (27.6%) 임
- **(연금소득)** 생활비 원천 중 연금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구권(10.4%), 포항·경주권(7.4%), 안동·청송권(7.0%) 임
- **(자녀지원)** 생활비 원천 중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권(25.6%), 포항·경주권(24.5%) 임
- **(국가, 지자체 보조)** 생활비 원천 중 국가, 지자체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영덕·영양·울진권(11.8%), 포항·경주권(9.0%), 영주·봉화권 (9.0%)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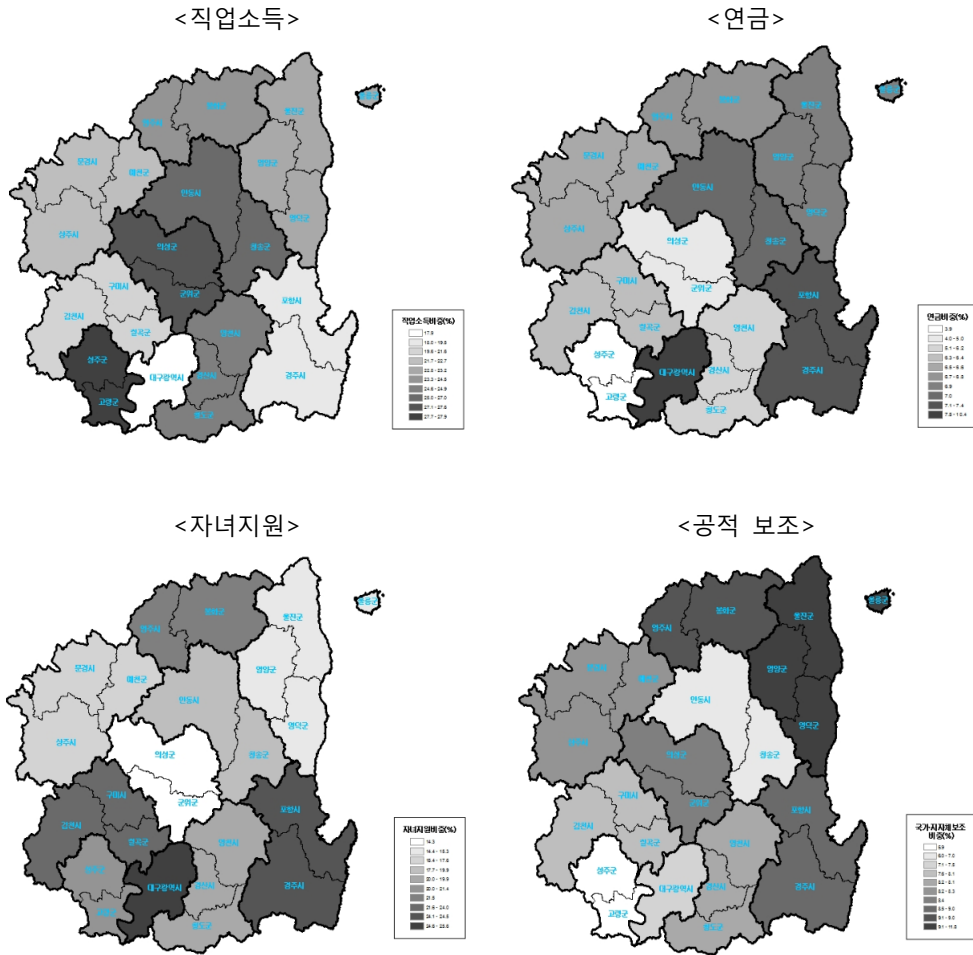
〈표 8-18〉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단위: %)

	대구권	포항· 경주권	구미· 김천· 칠곡권	안동· 청송권	영주· 봉화권	상주· 문경· 예천권	경산· 영천· 청도권	고령· 성주권	의성· 군위권	영덕· 영양· 울진권
본인 또는 배우자 일	17.9	19.5	21.6	27.0	24.5	22.7	24.9	27.9	27.6	23.2
예금, 적금	3.7	3.9	3.6	2.0	3.2	2.9	2.8	2.8	3.1	2.7
공적 연금	8.8	6.1	5.1	6.2	6.0	5.7	5.1	3.5	4.2	6.1
개인 연금	1.6	1.3	1.2	0.8	0.8	0.9	1.1	0.4	0.8	0.8
부동산	1.9	1.1	0.9	0.6	0.9	0.4	0.9	0.8	0.7	0.3
함께 사는 자녀	12.3	10.2	11.3	6.8	7.1	5.5	6.4	6.8	3.9	4.9
따로 사는 자녀	13.4	14.2	12.6	13.0	14.4	12.1	13.5	14.6	10.4	10.4
국가, 지자체 보조	7.5	9.0	8.1	7.0	9.0	8.3	8.1	5.9	8.4	11.8
기타 단일수단	1.3	1.0	1.1	0.7	1.4	1.3	1.0	0.7	0.9	0.7
복합수단	31.7	33.7	34.3	35.8	32.8	40.3	36.1	36.6	39.9	3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8-27] 행복생활권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0) 개인 표본자료